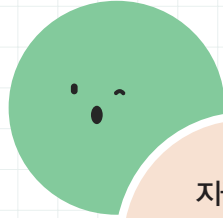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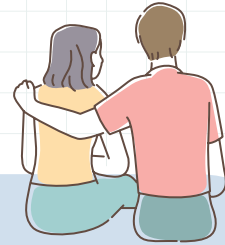


입시 여정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. 이미 수시 합격이라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집도, 하루하루 초조하게 정시 결과를 기다리는 집도 있겠죠.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,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다는 엄마들의 입시 후일담을 들어봤습니다.



지금까진 그럼 뭘 한 거니?

“수능도 폭망, 나름 안정적으로 썼다고 생각한 수시 여섯 장도 모두 불합격하고 나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. 사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말만 했지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요. 학원도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했을 뿐이라나요. 그러니 앞으로 1년 동안 제대로 한 번 공부해보고 싶다면 재수를 시켜달라는 얘기였는데, 그 말을 듣는 저는 속에서 얼마나 천불이 나던지요. ‘언젠간 노력의 결과가 빛을 발하겠지’라고 생각하며 잔소리 한 번 안 했는데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로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. 마음 같아선 네가 돈 벌어서 재수를 하든 알아서 하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니까요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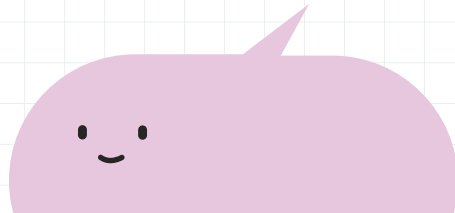
결국 내 옆에 남는 건 남편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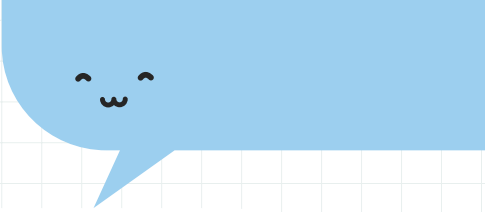
“연년생 두 아이가 한꺼번에 입시를 치른 작년 1년 동안 남편과의 사이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몰라요. 아이들이 어떨 땐 안 쓰럽다가도 어떨 땐 알미워 죽겠고, 감정이 하루에도 열두 번씩 널뛰는데 옆에서 남편까지 학원비가 아깝다는 등 정신 상태가 글렀다는 등 잔소리를 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.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냉전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면서 지긋지긋한 1년을 보냈죠. 어쨌든 애들은 둘 다 대학에 합격해서 요즘 매일 밖으로 놀러 다니느라 바쁘고, 노심초사 애들 걱정하다가 사이만 나빠질 대로 나빠진 저희 부부만 텅그러니 집에 있네요. 결국 남는 건 우리 둘뿐인데... 이제 애들은 자기 갈 길 잘 가리라 믿고, 남편이랑 잘 지내보려고요.”

토닥토닥  
Talk Zone

토·톡·존

입시가 끝난 후  
말말말





### 영어 유치원 안 보내준 엄마가 미안해

“아이가 이번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원하던 대학에 불합격했어요. 수능 점수가 전체적으로 아쉬웠지만 특히 어느 정도 믿고 있던 영어에서 목표한 등급을 못 받은 게 컸죠. 정시로 일단 지원은 해놓았지만 솔직히 상향 지원한 곳은 힘들 것 같고, 하향 지원한 곳에 합격해도 아이는 결국 재수를 택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되고 나니 그동안 뒷바라지를 잘 못해줘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 후회만 가득합니다. 중학생 때 그 영문법 특강을 듣게 할 걸, 다니기 싫다고 해도 초등학교 때 그 영어 학원을 그만두게 하지 말걸... 이런 생각이 거슬러 올라가다가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야 했나 하는 후회까지 들었지 뭐예요.”

###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지만...

“친정엄마가 최근 요양 병원에 들어가셨어요. 치매 증상이 있으셨는데 지난 1년 동안 부쩍 심해져 결국 병원으로 모시게 됐죠. 수험생 엄마라는 이유로 엄마 보러 친정에 자주 못 간 게 많이 후회되네요. 요양 병원에 들어가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데 엄마가 몸도 정신도 지금보다는 건강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보고 얘기도 나눌걸 싶어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. 내리사랑이라고는 하지만 고3 자식 뒷바라지한다고 내 엄마를 모른 척한 것 같아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요. 저에게는 상처만 남은 지난 1년이네요.”



###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자

“큰아이에 이어 둘째까지 입시를 끝내고 보니, 이제 주위에 남은 사람이 거의 없네요. 한때 거의 매일 만났던 아이들 친구 엄마들은 입시를 치르면서 하나둘 멀어졌어요. 대학을 잘 가면 잘 간 대로, 못 가면 못 간 대로 모임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그렇다고 아직 아이가 어린 후배들을 만나면 꿈과 희망에 가득 차서 현실 모르는 얘기들만 주구장창 하는데, 두 번의 입시를 치르는 동안 이미 멘탈이 무너진 저는 그런 얘기에 맞장구칠 기력도 없어요. 그렇다 보니 맘 편히 만날 사람 하나 없어요. 내 인간관계가 이 정도였구나 싶어 아쉽고 외롭기도 한데, 어차피 인생이 그런 거겠죠. 이제부터는 혼자 즐겁게 지낼 방법을 찾아보려고요.” @



'토닥토닥 Talk Zone(토·톡·존)'은 학부모님들의 공간입니다. 입시 고민에 소소한 பு념, 깨알같은 일상 꿀팁까지 학부모님들이 공감할 만한 소재와 이야기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. 이번주에는 입시를 마친 학부모님들의 이런저런 심정과 하소연을 들어봤습니다. <내일교육> 학부모님들의 보호구역. 토·톡·존이 언제나 응원합니다. 편집자